

시

■ 초등부

학교 가는 길

이성재 <광주송원초등학교 4학년>

시끄러운 학교 가는 길 엄마의 잔소리는 폭풍처럼 밀려온다.

“빨리 안 일어나?” “3분 안에 안 일어나면 혼난다.”

학교 가는 길은 애원하는 길 내가 엄마에게 더 자랐다고 애원하기 때문이다. “엄마 제발 조금만 더.....”

학교 가는 길은 스피드가 요구되는 길이다. 스쿨버스 뒤통수까봐 달리기 때문이다. “이성재, 달려라! 달려라!”

학교 가는 길은 그래도 즐거운 길 오늘도 지각하지 않고, 무사히 학교도착 “선생님 안녕하세요. 애들이 안녕”

■ 고등부

눈물

선혜경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우리는 섬이 되었습니다. 잔잔한 수면이 삼켜버린 것은 달빛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한 수백 개의 암초입니다 어둠만이 홀로 구조되어 풀어진 교실 안에서 오징어 배 불빛처럼 칠판에 번지는 오늘의 숙제 살아서 돌아오기. 하지 못한 선생님의 매같은 빗줄기들이 만개하지 못한 매화꽃의 대가리를 떨고 갑니다 드문드문 꿈들의 크기를 매달아 놓은 나무들은 갑작스레 침수한 바닷물에 암초가 되어 숨어 들어간 것일까요 무성히 자라났던 우리의 추억들이 한데 모여 단단한 대륙을 이루고 있었음을 물방울처럼 떠있는 남은 섬만이 증명해줍니다 간혹, 이가 빠진 책상과 튀어나온 의자 모서리는 물자국 가득 난 발자국을 기억할 뿐 교실 구석을 헤엄치는 섬들의 아우성이 얼룩져 매아리를 치고 달아납니다 학교의 끝자락을 적시는 빗소리가 흐릿한 낯장을 풀어놓고 빗방울처럼 우리는 교실에 남아 눈물이 영롱한 섬이 되었습니다

산문

■ 초등부

시골 가는 길

박민유 <광주송원초등학교 6학년>

“엄마 요즘 허리 괜찮아? 그리고 눈은 아프지 않고?” 내가 공부방에서 바쁘게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문 너머로 엄마와 외할머니의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지셔서 엄마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모든 엄마와 딸이 사이에는 그 어떤 관계보다 단단하고 끈이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 이번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 가족은 해남에 계시는 외할머니를 만나러 갈 예정이다. 내 중간고사가 끝나면 돌아오는

■ 중등부

새벽 안개

류강희 <여도중학교 3학년>

어째서인지 나는 강가에 서 있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의 강은 출고 외로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 안개 속에서 작은 배가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노를 젓는 사람 또한 없는 데도 배는 그저 북으로 북으로 나아갔다. 목적지는 어디? 시야에서 멀어져가는 배를 보기 위해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안개에 가려 더 이상 배의 형태를 볼 수 없었다. 그저 검은 무언가의 형태만 작은 점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와 동

■ 고등부

잊지 못할 추억

홍진호 <전남고등학교 3학년>

어두웠다. 실컷 열린 커튼 사이로 보인 농장 안의 풍경은 짙은 어둠만이 가득했다. 익숙하지 않은 잠자리 탓에 나는 깊게 잠들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천 그루의 나무에 열려있는 노란 배들은 달의 정기를 빨아들이기라도 하듯이 점점 노랗고 등글게 변해갔다. 조금 떨어진 작업장에서는 끝내지 못한 배 작업을 마쳐 하시는 아버지의 검은 실루엣이 아른거렸다. 고요함 속에 바쁘게 움직이는 아버지의 손짓에서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가 묻어났다. 허공에 떠있는 달을 응시하고 있는 나, 바람이 불 때마다 좌아아 좌아아 흘러나리는 외사귀들. 추억이 서린 농

토요일에 출발하는 것이다. 정말 기대되었다. 저번 설날에 할머니댁에 다녀온 뒤 4개월이 지났다. 6학년이 되고 나서 시험도 많아지고 공부할 내용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할머니댁에 갈 시간을 낼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는 공부 잘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신다. 분명 이번에 외할머니댁에 가면 나에게 ‘민유야, 시험 잘 봤나?’라고 물으실 것이다. 그러니 난 좋은 결과를 갖고 할머니를 뵙고 싶다. 시험이 끝난 후 엄마, 아빠와 나는 분홍색 카네이션을 사서 해남으로 향했다. 생각보다는 만족스럽지 않은 시험 결과여서 마음이 약간 무거웠지만 말이다. 시험결과가 별로였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외할머니와 이모, 이모부 그리고 사촌언니를 만날 기대가 되었다. 어께가 저절로 들쭉여졌다.

외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은 늘 신나고 행복하다. 차창 밖에 보이는 향기로운 아카시아 꽃과 흰 꽃이 예쁜 이팝나무들도 나처럼 들뜬 것 같았다. 해남 가는 길이 원래는 먼 길이지만 외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이 길은 항상 나를 기쁘게 한다. 외할머니는 내가 아가였을 때부터 우리 집에 오셔서 4살 때까지 길러주셨다. 그때는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으셨다. 외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 시소도 태워주시고 풍암저수지에 있는 염소, 닭도 보여주셨다. 나는 지금도 그때 외할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할머니의 눈과 허리가 안 좋아 지셔서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시지 못하게 되었

다.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외할머니를 뵈러 가야 한다. 할머니와 예전처럼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다. 그나마 지금은 내가 할머니댁에 가서 할머니와 나의 학교생활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또 몇 년이 흐른 뒤에는 이런 이야기 나누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계속해서 외할머니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구나 내가 공부 잘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할머니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외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이 길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가고 싶다. 영원히 사랑하는 외할머니와 나를 위해서.....

시에 나도 같이 안개에 폭 묻혀 숨이 점점 막혀오는 기분이었다. 분명 나는 두발로 이 땅 위에서 있었는데, 물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기본 나빠. 눈을 떴다. 어둠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것이 아직 이른 새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몸을 조금 뒤척이고 한숨을 푹 내쉬니 그제서야 찌뿌둥한 몸이 나른해지는 것 같았다. 옆드려 있던 책상 위에는 그리다만 그림이 있었다. 드넓은 강과 작은 배 하나가 띄어져 있었다. 아무리 그림을 그리다가 깔고 눌렀지만, 왜 허릴 그런 꿈이람. 붓을 들어 물감을 칠했다. 안개가 짙어져 배가 희미해졌다. 그러다가 불어오는 바람에 고개를 들었다. 창문이 열려있었다. 밖은 고요하고 아무도 없어서 한적했다.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해졌다. 그때 저만치에서 파란 것이 팔랑거리며 날아왔

다. 나비였다.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좀처럼 내가 있는 2층까지 올라오지는 않았다.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듯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고작 나비 한 마리를 보기 위해서 내려가야 하는 수고를 덜어야 했지만, 새벽 산책만큼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었다. 밖은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째서일까 나비만큼은 잘 보였다. 늘 보던 나비지만 감회가 새로웠다. 나비는 내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더니 따라오라는 듯 어디론가 날아갔다. 새벽의 공기는 맑고 상쾌했다. 스승하고 숨을 들이마시니 향긋한 풀냄새가 몸을 휘감았다. 나비를 따라 걷고 또 걸었다. 느긋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늘 걷던 길, 보던 풍경인데 새로운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 안개 때문인가? 하지만 조금 이상했다. 흐드러지게 핀 안개꽃들이 길을 이뤘다. 안개꽃들이 이 길가에 피어있었다. 꽃에 한눈을

팔고 한참을 걸었을까. 어느 새인가 나비는 온대 간데 없고 나 혼자 안개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계속 걸을까.” 걷다 보면 무언가 보이겠지. 그렇게 몇 분을 걸었을까 뭔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강이잖아.” 꿈에서 보았던, 내가 그림에 그려 넣었던 그 강이었다. 우리 마을에는 이런 강이 없다. 있다 해도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했다. 그 짧은 시간에 강에 도착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아, 그렇다면 이젠 또 꿈이구나. 같은 장소를 두 번이나 보니 조금 지친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로 꿈에서 깨기 위해 눈을 감았을 때, 무언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안개 속의 작은 점이 점점 커졌다. 작은 배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장 안에서 조용한 침묵의 기류가 흘러나왔다. 이맘때였다. 4대강 사업이 추진된 것도 아버지가 어께를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잦아진 것도 작년 이맘때부터였다. 나랏일이 라는 이름으로 영산강 주위의 땅들을 하나하나 정부에서 매입해가기 시작했다. 공사는 시작되었고 새파랬던 강물은 흙빛으로 변해갔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천 수만 마리의 생명체들, 하나 둘 떠나가는 마을 사람들, 여름이면 끊이질 않던 낚시꾼들, 강가에서 뛰놀던 어린이들, 그 모두가 점점 사라져가고 강의 하류에는 은빛 버린내만이 진동하고 있었다. 20여 년간 아버지와 함께했던 농장은 아버지에게 추억이고 행복했던 기억이었다. 이러한 소중한 공간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짓밟고 침해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었다. 까맣게 타들어 가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돈이 되는 일이라며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잔뜩 술에 취해 계셨다. 나는 그저 아버지의 등을 두드려주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의 눈에는 비장함이 서려있었다. “돈도 안 되는 농장 팔면 좋잖아? 왜 그래?” 죄인이라도 된 양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하얀 담배연기만을 뿜어내고 계셨다. 지난 20여 년을 함께 해온 소중한 것들, 그 소중한 추억을 한순간에 떠나보내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렵게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한참을 굳게 입을 닫고 계시던 아버지는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농장 팔고 광주로 가자.”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꿈을 버리고 현실을 택하신 건지, 아니면 현실을 버리고 꿈을 택하신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마음을 굳히신 후, 농장에 대한 처

리들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무거운 마음으로 노란 바구니에 노랗게 익은 배들을 하나 둘 채워 넣었다. 아버지가 1년 동안 흘린 땀방울들은 노란 달처럼 토실하게 여물어 있었다. 2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농장에 묶여 여행 한번 가지 못하신 아버지, 아무 말 없이 상자에 노란 배들을 담으시는 아버지 손에 상처가 유난히도 커 보였다. 한 그루 두 그루 사라지는 나무들, 점점 폐허로 변해가는 푸르렀던 넓은 땅들, 아버지는 사라지는 나무들을 감싸지 못하신 채 뒤로 돌아서 버리셨다. 한 바스 두 바스 차례대로 트럭에 싣고서 그간 정들었던 농장을 떠나보냈다. 트럭에 오른 나는 농장 쪽을 자주 돌아보았다. 농장이 꿈처럼 멀어지고 있었다. 비포장 길을 달리는 트럭이 덜컹덜컹가는 바람에 바스에 담긴 배 하나가 굴러 떨어졌다. 배는 점점 멀어졌다. 그것은 농장까지 굴러갈 듯했다. 조금씩 빛이 나는 것 같기도 했다. 소중한 추억이, 잊지 못할 추억이 점점 멀어져갔다.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결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게시판.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청다룩다슬기전문점, 필인쇄디자인, 청해복집, 국제사, 동양철학원, 다나베음므, 하심사, 내일또식당, 토산철학원, 두걸음직업소개소, 낙지한마당, 올리브반찬도시락, 광남기업, 뚝이레, 규방, 등촌, 김용만국수집, 특임이아구짬, 광주화랑, 박당화랑, 석당화랑, 신신예술의집.